



2019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부가티의 창립 110주년 기념작 '라 부아튀르 누아르' 단 1대만 제작되었으며 140억 원에 팔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에 등극했다. 사진제공 | 제네바모터쇼조직위

세기의 명차 '라 부아튀르 누아르' 140억원 낙찰

부가티 110주년 기념... 단 한 대 생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770마력 자랑 리막 전기차 'C_Two' 제로백 1.85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파리 모터쇼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쇼로 불리는 제네바모터쇼는 두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격년제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모터쇼와 달리 제네바 모터쇼는 매년 개최하고, 유럽에서는 가장 빠른 3월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전 세계모터쇼들 중 가장 많은 럭셔리 모델과 슈퍼카가 출품되는 모터쇼로도 유명하다. 89회를 맞은 2019 제네바 모터쇼에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슈퍼카를 살펴봤다.

●제로백 1.85초? 140억? 상상 초월 슈퍼카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가장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킨 슈퍼카는 부가티에서 만든 '라 부아튀르 누아르'다. 부가티 110주년을 기념해 단 1대만 만들어졌다. 디자인, 품질, 소재, 가속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희대의 명차다. 탄소 섬유로 제작한 차체에 8.0 리터 16기통 엔진을 장착해 무려 1500마력의 출력을 자랑한다. 제작비만 약 104억이 들었는데 한 수집가에게 1100만 유로(약 140억 원)에 팔렸다.

람보르기니에서는 초고성능 컨버터블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를 내놓았다. 4륜 구동으로 6.5리터 12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770마력을 발휘한다. 최고속

도 305km/h 이상, 제로백(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2.9초, 200km/h까지 가속하는 데 8.8초면 충분하다. 가격은 6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르쉐는 오픈탑 스포츠카인 신형 '911 카브리올레 S'를 공개했다.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450마력(PS)을 발휘한다. 최고속도 300 km/h 이상, 제로백은 4초가 안 걸린다. 마그네슘으로 제작한 소프트탑은 고속 주행에서도 팽창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PDK)와 포르쉐 웨트 모드(Porsche Wet Mode)를 적용해 젖은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이 가능하다.

페라리는 2인승 미드십 슈퍼카 'F8 트

리뷰트'를 출품했다. 488 GTB의 후속 모델로 3.9리터 8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이전 모델보다 50마력 더 강력해진 720마력의 출력을 자랑한다. 최고속도는 340km/h, 제로백은 2.9초다.

크로아티아의 전기 슈퍼카 제조사인 리막에서 선보인 'C_Two'도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관심을 모으는 모델 중 하나이다. 차체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졌으며, 각 바퀴에 모터가 달려 있는 순수 전기차로 1회 충전해 6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제로백은 누가 운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1.85초이며 최고 속도도 415km/h에 달한다. 슈퍼카 수준을 넘어선 괴물이라 부를 만한 성능이다.

sereno@donga.com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하이넷 출범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기업 13개사가 모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drogen energy Network-HyNet, 이하 하이넷)가 공식 출범했다. 하이넷은 8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11일부터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하이넷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던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 사업도 더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넷은 앞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차 6만5000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최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실현한다는 목표이다.

원성열 기자

닛산 “신형 리프 프로 25% 전동화”

닛산은 2022년까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판매의 25%를 전동화한다는 중기 계획을 밝혔다. 전동화 핵심 모델은 100% 전기차 리프다. 닛산은 올해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에서 신형 리프를 선보이고,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리프를 출시할 예정이다. 닛산은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카 e-파워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e-파워는 내연기관이 있지만 구동은 관여하지 않고 구동을 담당하는 전기모터를 돌리는 발전기 역할만 한다. 닛산은 올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e-파워 모델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출시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



포르쉐 '911카브리올레 S'



페라리 'F8 트리뷰토'



리막 'C_Two'

현대차, 가상현실 운전 체험 운영

현대자동차가 운전이 어려움 느끼는 운전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실제 운전이 아니라 가상현실 운전 체험으로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1분 탑차를 개조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장착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가상현실 운전을 통해 급차량

출몰, 버스 정류장 무단횡단, 경사구간 급차로 변경, 추돌사고 현상, 주행 중 화물낙하 등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운다. 현대차의 안전기술인 조향력 확보가능 장치, 차체자세유지 장치, 자

동 긴급제동 장치, 졸음, 운전부주의 경고 장치 등을 체험해 차량에 안전기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할 수 있다.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www.safelif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성열 기자

허리·목·무릎 통증을 운동으로 한번에.. 전자동 거꾸리!

◆허리통증..운동·비수술 단계별 치료 현대인들의 척추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와 책상에 앉아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적어지는 중장년들은 근력이 감소됨에 따라 경·척추 질환자가 늘고 있다. 척추는 기와집의 대들보에 비교될 정도로 우리 몸에 있어 중요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경·척추가 무너질 경우 통증은 물론 디스크나 추간증 등과 함께 심한 경우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척추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척추가 받는 중력의 힘이다. 이번엔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이러한 중력의 힘을 반대로 이용하여 척추를 견인해 주어 교정하고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 주어 척추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자동 전동 거꾸리는 척추 건강 개선 뿐만 아니라 전신 스트레칭 효과도 볼 수 있고 하체에 물려



3단계 자동운동기능 장착 세계최초 특허 등록 10-1884157 [KBIIZ-1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가입] 실버 전용 자동전동거꾸리

있는 혈액을 머리까지 공급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기존 수동 방식의 거꾸리와는 다른 자동 방식으로 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핸디형 리모컨으로 쉽게 초보자나 노약자들이 혼자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 할 수 있다. 또한 서서 시작 하는 방식으로 혈압이 있는 환자의 사용에 무리가 없고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세련된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경제성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하루 5분씩만 거꾸리 운동에 투자한다면 경·척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국내유일 3단계 자동 프로그램형 전동 거꾸리는 100% 국내제작으로 1년 무상 A/S되며 1단계 판매 감사기념으로 2019년형 최초 40% 할인행사와 5개월 무이자로 3일 무료체험과 20만원 상당한 사은품을 30분에게만 진행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

다리의 뭉침, 쥐가 난다면 발목뻘뻘운동 추천~

◆'누구나 쉽게 누워서 하는 이어돌' 혈액순환 발목뻘뻘 자동운동기 '이어돌'은 우리 몸 혈관의 80% 이상이 모여 있는 발목을 자극해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다. '이어돌'이란 '막힘없이 이어서 도는 순환'의 순우리말이다. 발목뻘뻘 운동의 시작은 신장병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앓던 일본인 이나가키씨가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는 힘을 관찰하다가 안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뻘뻘 운동은 발목의 혈관을 두드러짐으로써 혈관의 수축/이완을 도와 아래쪽에 모여 있는 노폐물과 정맥혈을 심장쪽으로 운반시켜 혈액이 순환되는 원리로 몸 속에 고여 있던 노폐물을 정화와 피로를 풀어준다. 특히, 발저림으로 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고생하는 분 들이나, 저녁에만 발이 시리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사용하여 각종 성인병까지 치유가 된 사례가 있는 책이 출판 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혈액순환 발목뻘뻘 자



7단계 자동운동기능 발목뻘뻘운동기

동운동기 '이어돌'이 출시되었다. 관계자는 "타제품과는 다르게 리모컨이 내장되어 편하게 누워서도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소음, 저진동으로 바닥 울림이나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7가지 운동 패턴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고 전했다. '이어돌'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목뻘뻘 운동은 하루 중 아침 공복시 및 취침 전 2-3회 정도

무릎을 펴고하면 효과적이다. 초보자는 시작할때 강약 조절 버튼으로 처음에는 약으로 놓고 며칠간 사용하다가 점차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어돌' 관계자는 "2주년 출시기념으로 3일간 무료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후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고 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